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8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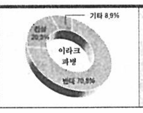
2003년 10월 6일(월)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겸 주간 김종덕 편집장 권정우 인쇄인 홍윤주 신문사 961-4151,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FAX 961-4183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2 대학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지급된 컴퓨터 반납



3 대학

대학생 70% 이상 이라크 파병 반대

6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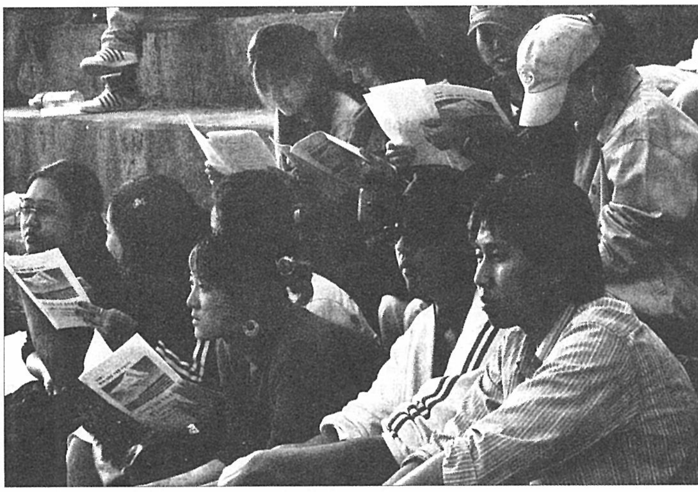
북의 여대생이 말하는 북의 대학 대학생

8 문화

2대가 운영하고 있는 헌책방, 신고서적 속으로…

용인총학, "재단공영화 지지 · 파병반대"

정기학생총회 정족수 채우지 못해 성사 안돼



지난달 30일(화) 열렸던 용인배움터 정기학생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모습.

지난달 30일(화)에 열린 용인배움터 정기학생총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원자주화 투쟁 합의사항 이행과정 △학내 미결사안 및 쟁점사안 △2학기 주요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총학측은 대학당국과 합의한 스쿨버스 통학용 회수권제와 스쿨버스가 학내 진입시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결사안인 중앙도서관 건설과 관련, 대학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99년부터 끌어온 논의를 마무리 지어 좁은 도서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학내 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 재단 공영화를 지지하는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경상대 학생회장 추형석(경영정보 97)군은 구재단 측과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공영화된 재단을 구성하는 주체는 학내 3주체인 학생, 교수, 직원"이라며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서유럽대 학생회장 원종관(영어 98)군은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해 "명분없는 전쟁에 국익을 운운하며 파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라크 추가 파병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학생들에게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왕산체전 '왕산 피스컵'의 폐막식과 함께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축구는 무역학과가 발야구는 물리학과, 배구는 화학과, 족구는 디지털정보공학과가 각각 우승해 부상으로 소파와 레이저 프린터기를 받았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진주(동유럽 · 노어 03)양은 "정기학생총회가 학생들의 낮은 관심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아쉽다"라고 말했다.

전영희 수습기자 mumo101@hotmail.com

왕산피스컵 축구결승전, 무역학과 우승

지난달 30일(화) 용인배움터 대운동장에서 진행된 사학과 대 무역학과의 왕산피스컵 축구결승전에서 무역학과가 사학과를 4대 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시작 전부터 응원전이 치열했던 이번 경기는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 전반 21분 무역학과·김광호(97)군의 슛이 그물을 가르면서 평행선을 깼다. 이어진 후반전에서는 첫 골을 기록했던 김광호군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전세가 무역학과로 기울었다. 이어 무역학과는 김태규(03)군과 마남표(98)군의 골이 이어져 4대 0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와 관련, 무역학과 과회장 양용희(98)군은 "우선 우승해서 너무 기쁘다. 학우들이 수업도 못 들어가고 열심히 뛰어준 결과"라며 우승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두 골을 기록한 김광호군은 "팀원들과 손발이 잘 맞았던 것이 우승요인이다"며 무역학과가 의기투합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경기의 주심을 봤던 헤르메스 정기환(서유럽 · 불어99)군은 "사학과 무역학과 두 팀 모두 열심히 뛰었던 경기였으며 경기매너 역시 깔끔했다"라고 전했다.

서울 전학대회 "4대 핵심과제 중 재단공영화는 제1순위"

몇몇 대의원들 회의도중 자리떠, 일부안건 논의 못돼

서울배움터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지난달 29일(월) 사회과학관 206호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열렸다. 재적 대의원 131명 가운데 72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66명을 넘겨 회의는 성사됐다. 회의는 △성원확인 △개회선언 △민중의례 △서기단장 임명 △안건 상정 및 회순 통과 △안건 처리 △회의록 낭독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 안건에는 △방중 활동복, 상반기 평가 △공약이행 보고, 대학교육 개혁 요구안 이행보고 △결산보고가 있었다.

회칙개정 안건 순서에서 선거시행세칙 개정이 논의됐는데,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항의 서술어를 바꾸고 인터넷 상에서 벌이는 선거유세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논의 및 토론안건에서는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4대 핵심과제인 재단공영화 투쟁, 대학교육 개혁 운동, 반미반전 평화수호 ·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 학생회 건설과 이번달 8일(수)에 열릴 정기학생총회 계획에 관해 논의됐다. 이날 대표자들은 향후 재단공영화 추진과정에서, 재단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들이 추천한 인사들 중 각 1인을 이사로 선임하게 하는 것과 교육부는 학내 구성원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결의했다. '학생회 건설'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과 · 반 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하는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전 단위에서 학생회 건설에 노력하자고 논의했다. 두 번째로 정기학생총회(정총)와 관련, 총학생회측은 '교육부가 재단문제를 이번 달에 마무리지으려 한다'며 이번 정총의 중요함을 설명한 뒤, '이를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심사 안건 순서에서는 총학생회 특별기구 사업계획을 논할 계획이었으나 회의가 계속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 2면으로 이어짐

강경신 기자 shini18@hanmail.net

주제기획

그들도 외대생이다

우리학교에는 약 7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16명의 교환학생이 있습니다. 국제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이 입을 맞춘 듯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결과다." 이번 주제기획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기피하게 된 당연한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 관련기사 4, 5면

이번 외대학보 주제기획에서는 우리학교 유학생들이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그리고 새내기 유학생이 겪게 될 여러 고충들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외로운 타향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들의 고충이야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학교측의 배려가 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 할 말은 산더미같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이야기 해야할지? 거기다 눈치는 어떻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눈치안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외대학보에서는 유학생 4명을 한자리에 모시고 '그 동안 학교에게 아쉬웠던 점'에 대해 뼈있는 수다 한번 떨어봤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파악했으니 '어떻게 배려해줘야 하는가?'를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학교들을 찾아 가봤습니다. 그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외국인 학생들은 이에 대해 만족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편하게 만나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어학 공부도 할 수 있는 '글로벌 라운지', 거기다가 일대일 도우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버디 시스템'까지 하나부터 열 가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가 해야할 일은? 소 잃기 전에 빨리 외양간 고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외국인 학생 배려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학생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그들. 이런 저런 불편을 대신 전해주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학교도 드디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인터내셔널 라운지를 개설했다고 하는군요. 거기다가 안내책자까지 하나 만든다고 하네요.

이번 주제기획에서는 외대 내의 명실상부한 소수자가 되어버린 외국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담아봤습니다.

주제기획팀

용인 아울제, 오는 7, 8일(수)

용인배움터 아울제가 오는 7, 8일(수)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다. 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아울제는 연행분과, 체육분과 등 각 분과에 속해있는 동아리가 행사를 맡게된다.

연행분과는 슬랩업, 마스터피스 등의 공연, 체육분과에서는 활터, 검도부의 대련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축제는 노천극장에서 산악부의 암벽등반과 하늘사랑의 축하비행도 준비된다.

이와 관련, 동아리연합회 사무국장 이성열(동유럽 · 폴란드어 97)군은 "아울제는 동아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축제를 통해 왕산인의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공연뿐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단체줄넘기 등의 게임도 있으니 왕산인이 함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 정기학생총회, 오는 8일 열려

서울배움터 정기학생총회가 오는 8일(수) 오후 4시 30분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정기학생총회(정총)에서는 재단공영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되고 이라크 파병반대를 결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비상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총학생회장 강정훈(동양 · 중국어 98)군은 "이 자리에서 재단 개혁을 열망하는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과학생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수) 총학생회는 비상학생총회에서 채택된 투쟁 결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주인을 기다립니다…"

김 당(외대학보 27기)
ohmynews

"인생의 키피 외대학보에서 시작하자"

이인우(외대학보 27기)
한겨레 스포츠부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것. 학보사에서 배웠다."

정희상(외대학보 32기)
시사저널

"깨어있는 비판의식의 시작 학보사"

○○○ (외대학보 70기)

대상 : 용인배움터 03학번
기간 : 10월 17일(금)까지
장소 :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전자우편 : oedaepress@hanmail.net
연락처 : 031-330-4112

빈의자

송교수 문제, 관용으로 해결하자

▲재독 철학자 송두율교수가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것과 과거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에 입국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것은 송 교수가 그동안 이를 부인했던 모습과는 다른 것이다. 노동당에 가입한 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거짓말을 한 부분은 그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마땅히 사과할 일이다. 또한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과 북한의 공작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혹 등 그간의 정황에 대해서는 보다 명쾌한 해명이 뒤따라야 하겠다. 여기까지다. 이만큼이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일 뿐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작심한 듯 연일 매서운 색깔공세를 펴고 있다. 밝혀진 내용이상으로 추측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까지. 모든 것이 잘 짜여진 각본같이 척척 돌아가는 느낌이다. 송두율 교수를 초청한 단체와 정부는 졸지에 우리나라의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동당 후보위원을 위장 잠입시키려 한 '집단'이 돼버렸다. 더욱이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정부에 북한과 연계된 핵심세력이 포진해 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것은 납득할만한 근거나 이유도 들지 않고 색깔론 공세를 퍼붓는 전형적인 매카시즘 선동방식이다.

▲송 교수의 시인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그를 귀국시키고자 노력했던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일 터다. 그런 이들에게 색깔까지 덧씌우려는 것은 이 기회에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겠다는 수구보수세력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2일(목)에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송두율 교수는 그를 처벌하든지 추방하라는 한간의 의견에 "37년만에 귀국했는데 추방당한다면 그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37년을 타국에서 지낸 그다. 송 교수가 처벌을 감수하고 귀국한 것은 그가 기자회견 말미에 언급했던 '우리민족인 남과 북의 화해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우리사회가 한층 성숙된 관용의 자세로 송두율교수를 품어야 할 때다.

편집장

이 사람

'북녘유적답사'를 다녀온 김제동군을 만나

평양에서 느낀 '하나됨'

외대학보 자료사진

"꿈에서만 그리던 곳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2일 '북녘역사유적 답사'를 다녀온 김제동(사범·영어교육 99)군의 말이다. 김군은 지난달 22일(월)부터 26(금)까지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준) 청년학생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북녘역사유적 답사에 참가해 평양과 그 일대를 다녀왔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창 밖으로 북녘의 섬과 밭이 보일 때는 정말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실감이 났죠"라고 북녘에 도착한 첫 느낌을 회상했다.

이번 답사에서는 평양, 백두산, 묘향산 등 많은 곳을 돌아봤는데 가는 곳마다 탄성을 자아냈다고 한다. 그는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아이를 껴안는 모습으로 설계된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다. 또한 그 안에서 이뤄지는 서예, 무용, 컴퓨터 등의 교육들이 너무나 잘 이루어져 있어 놀랐다고 전했다.

남측에서 흔히 북측 사람들은 딱딱하고 경직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남측 사람들보다 먼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고. 다양한 유적들보다 더욱 인상깊고 좋았던 것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고 했다. "남측과 북측 학생 상봉 때 반갑다고 저의 손을 잡고 울던 북측 학생의 떨리던 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측 학생들이 북측 학생들이 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래도 반세기 동안 분단됐던 북녘에서 특별히 이질감을 느꼈거나, 힘들었던 적은 없냐고 물었다. 그는 "순간 순간마다 분명히 느꼈을 거에요. 하지만 북녘에서의 좋았던 기억이 더 많아서 그런 감정이 묻혔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힘들었던 것은 매일 밤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웠죠"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평양에서 묵는 4박 5일내내 '내가 북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남쪽에서 기존 언론들에게 들었던 것, 보았던 것들과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달랐다고 했다. 북측에서는 남측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북에 있을 때 매일 노동신문을 보게 됐는데 신문에 연일 남측 대학생 이야기가 실려 놀랐다고 했다. 지난번 스트라이커 부대 구속사건으로 인해 학생들이 구속된 것을 규탄하는 내용까지 실렸다고 전했다.

그는 "통일이 되려면 정말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학생들이 앞장서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운이 좋게 이런 기회를 가져서 너무 좋았다며 기회가 닿는다면 모든 학생들이 북녘에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린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아닌가요?"라고 말하는 그를 보며 나는 하루 빨리 평양에 가 볼 수 있게 되길 소망했다.

김현지 기자
oedaepress03@hanmail.net

이라크파병 저지를 위한 외대인 공동대책위원회, 첫 발 내딛어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외대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지난 1일(수) 서울배움터 인문과학관 504호에서 열린 '이라크 파병저지 실천을 위한 외대인 2차 시국회의'에서 건설됐다.

공대위는 지난달 27일(토) 이라크 파병 저지 투쟁의 기조와 향후 목표를 논의한 1차 시국회의에서 제기됐던 것이다.

2차 시국회의를 통해 발족된 공대위측은 "공동대책위원회는 파병을 반대하는 외대인이 함께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아직 학내 반전여론이 미미한 만큼 학회, 동아리, 언론사 등 여러 단체가 함께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대학생 국민투표와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 △공동실천계획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전국대학생 국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는 정기학생총회에서 더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서명과 모금을 받자고 논의됐다.

한편, 오는 7일(화)에 이라크 반전평화팀 초청 거리 강연을 시작으로 9일(목) 외대인 촛불집회, 10일(금) 전국대학생 직접행동의 날, 11일(토) 범국민 대회 등의 행사가 예정돼 있다. 공대위 측은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과 범국민대회 행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더욱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건설에 관해 김은영(정책과학대학원 3학기)양은 "파병을 하는 것은 미국의 점령을 돕는 것이고 이것은 빨리 한반도를 침략하라는 것과 같다"며 파병을 반대하고 더불어 공대위 건설을 지지했다. 진행을 맡은 동양어대 학생회장 이현욱(중국어 01)군은 "이라크 파병 반대를 교내에서 공대위를 통해 알리고 여러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공대위 커뮤니티(cafe.daum.net/hufswithpeace) 가입을 권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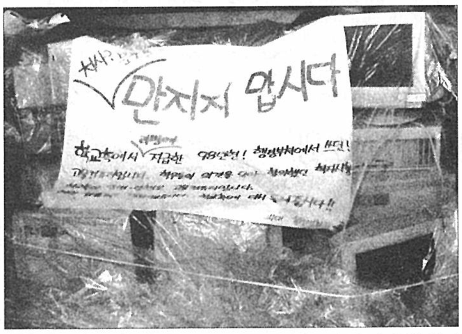
서울 사회대 정총 지난달 30일에 열려, 사범대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돼

지난달 30일(화) 서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열린 사회대 정기학생총회가 85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부에는 사회대학생대표자회의(사학대회) 안건 발표 상반기 평가 및 국별 평가, 특별기구 활동보고, 상반기 결산안 보고 회칙개정 하반기 사업계획서, 재단공영화 토론 2학기 사업 예·결산안 보고를 했다. 2부는 세계무역기구 개방과 이라크 파병반대, 재단공영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관련 영상물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반전운동의 일환으로 다음주부터 '평화나무'란 전쟁반대 캠페인을 하기로 했는데 이는 평화나무 줄기에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나뭇잎을 붙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회대 학생회장 이상근(신문방송 00)군은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정기총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9월 30일(화) 열릴 예정이었던 사범대 정기학생총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번 정총은 인문관 앞 분수대에 마련된 무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68명이 참석하여 기준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만 진행됐는데 하반기 사업계획은 재단공영화와 반미반전평화운동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어진 순서로 사범대 율동패, 노래패 연합 반전평화극 공연과 전교조 노래패 '해맑은 웃음으로'의 노래 공연이 진행됐다.

사범대 학생회측은 정기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예정되었던 안건은 단대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범대 학생회장 홍지회(불어교육 01)양은 "홍보 부족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차라리 주지말지… 용인배움터 본관1층에 쌓인 컴퓨터. 지급된 컴퓨터의 성능이 낮다는 이유로 총학생회측은 컴퓨터를 학교측에 반납했다.
박지혜 기자

25회 외문문화상, 오는 26일까지 마감

교지편집위원회가 '외문문화상'의 원고접수를 26일(일)까지 마감한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외문문화상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등단 기회 제공과 문화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하는 행사이다.

모집 분야는 소설, 시(3편 이상), 번역글(영문)이며 전국 대학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원고는 교지편집위원회(서울배움터 학생회관 211호,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304호, hufskj@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상금은 소설부문은 당선작 50만원, 가작 30만원, 시는 당선작 40만원, 가작 25만원이며 번역글은 당선작 30만원, 가작 20만원이며 상패가 함께 수여된다. 심사위원은 소설가 이청준, 시인 신경림, 영어과 박우수교수이다.

이와 관련,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박연주(동양·중국어 02)양은 "작년의 경우 시 부문에 응모한 원고가 10여 편에 불과했다"며 "올해는 타학교 교지편집위원회에 알리는 등 많은 신경을 썼으니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누보 로망' 작가 미쉘 뷔토르 초청 강연회, 오는 6일 열려

오는 6일(월) 오후 2시에 프랑스 누보 로망 작가 중 한 명인 미쉘 뷔토르 초청 강연이 교수회관 2층 강연회장에서 열린다. '누보 로망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일반대학원 불어불문학과와 외국문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주한프랑스대사관과 대학당국의 후원을 받아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반대학원 불어불문학과 학과장 오시근교수는 "원래 대학원생을 위한 강연으로 계획했지만 불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해 통역사를 붙여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며 "문학 전반의 경향에 대해서도 강연할 예정이니 문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 2003 결승전, 오는 7일 열려

지난달 29일(월)부터 서울배움터 서양어대 주최로 열린 유로 2003 결승전이 오는 7일(화) 오후 1시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날 결승전에 앞서 6일(월)에 열리는 준결승전의 각 경기에 이긴 과가 결승전에 진출한다. 준결승전은 오전 11시에 포르투갈어과와 네덜란드어과의 경기가 열리고 오후 1시에 불어과와 서반아어과의 경기가 열린다.

7일(1시)
6일(11시): 포어 – 네어
6일(1시): 불어 – 서어

지난 2일(목), 기숙사 청량제 열려

'청량제'가 지난 2일(목) 용인배움터 기숙사에서 열렸다. 기숙사축제인 청량제는 동아리공연과 가요제, 캠프파이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청량제는 지난 학기와는 달리 학생들이 참가하는 가요제가 중심이 됐다. 가요제 1등에는 유예지(동유럽·노어 02)-이재화(동유럽·노어 01)팀이 2등은 김경수(서유럽·영어 98)-위현석(서유럽·서반아어 98)팀과 이형기(정보산업공·전자정보공학 01)-이선미(동학·일본어 98)팀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3등은 이지수(동학·일본어 02)양과 이기욱(인문·철학 99)-장원석(인문학부 03)팀에게 돌아갔다.

가요제 사회를 맡은 김준현(인문·철학 99)군은 "지난 학기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청량제가 학생들이 같이 즐기는 문화를 형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가요제 2등을 차지한 김경수(서유럽·영어 98)군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쁘다"며 "졸업하기 전에 좋은 경험이었다"며 우승소감을 밝혔다.

청량제에 참가한 김수경(자연·수학정보통계학 03)양은 "동아리밴드가 가수 못지 않게 잘 불러 감탄했고 오랜만에 기분전환을 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전했다.

용인 구속자 결심, 오는 9, 10일(금)

오는 9일(목) 스트라이커 부대관련 구속된 용인배움터 동유럽대학생회장 전유리(노어 01)양의 공판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결심으로 추승미(동유럽·노어 01)양과 지혜민(서유럽·영어 03)양의 공판도 같은 의정부지서에서 10일(금)에 열린다. 용인배움터는 시위관련 구속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구속자 후원주점, 탄원서 모으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학자간부 연정화(서유럽·서반아어 03)양은 "시위 동기에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속학생들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연극회 워크샵 공연, 오는 9일부터

서울배움터 연극회의 워크샵공연이 오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워크샵 공연은 03학번이 배우로 처음 무대에 나서는 공연이다. 이번에 상연될 작품은 다리오 포의 도덕적 도둑이란 작품을 각색한 것이다. 이 작품은 시의원 집에 침입한 도둑과 불륜관계의 커플들이 등장해 하룻밤사이에 얽히고 설키는 해프닝을 다룬 내용이다. 입장권은 분수대 앞 이동데스크나 공연 당일 구입할 수 있다. 공연은 9일과 10일은 오후 6시 30분, 11일은 오후 3시 30분과 6시 30분에 열린다.

연극회 부회장이며 이번 공연의 조연출을 맡은 장형윤(서양·불어 02)양은 "순수하게 연극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관람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FBS 가요제 본선, 오는 9일

'23회 FBS 외대 가요제' 본선 대회가 오는 9일(목) 오후 5시 30분 서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선에는 40팀이 참가했고 이 중 10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심사는 팝 칼럼리스트 임진모씨와 성우진씨가 맡고 초대가수로 러브홀릭과 스키조의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상금 80만원, 우수상은 상금 30만원, 난장상은 상금 20만원이며 상패가 함께 수여된다. 1부 참가팀은 워키토키(한국외대), 크림슨(고려대), 소울루션즈(건국대), 탈무드(경희대), 블루드래곤(중앙대)이고 2부는 임진호(동덕여대), 외인부대(한국외대), 서있는 사람들(숭실대), 메이데이(연합), 용삼이와 밤꽃내음(광운대)이 참가한다.

이와 관련, 교육방송국 국장 유현우(서양·독일어 01)군은 "이번 가요제 기조는 '즐거운 난장'이다. 모두 가요제를 즐기자는 취지"라며 "관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으니 많이 관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9, 10일(금), 폴란드어과 학술제

폴란드어과가 주최하는 학술제가 '놀러와'라는 주제로 오는 9.10(금)일 오후 5시 30분에 용인캠퍼스 어문관 201호에서 열린다. 홀수년마다 진행되는 이 학술제는 각 학회가 주제를 정해 준비한다.

PoTo학회는 폴란드 영화를 바탕으로 연극과 음악을 준비하고, WOP학회는 부활절의 폴란드 풍경을 보여준다. 사회과학학회인 '햇새벽'은 호주제라는 주제로 연극을 준비하고, 마주르카학회는 폴란드 민속춤을 공연한다. 또한, 폴란드어과의 '종합스포츠'라는 소모임에서는 이번 여름방학때 도보여행 내용을 영상편집해서 보여준다.이와 관련, 폴란드어과 학생회장 이지영(01)양은 "이번 학술제는 기존의 딱딱하고 지루한 형식을 벗어나 모든 학생들이 정말 놀러오는 마음으로 가볍게 즐기면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재미있는 학술제다"라고 밝혔다.

법대 학생 수술비 마련을 위한 주점 열려

서울배움터 법대의 민사법학회가 오는 8, 9일(목) 오후 6시에 사회과학관 앞에서 주점을 연다. 이번 법대 주점은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황세미(03)양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열리는 것이다. 티켓은 3천원, 5천원, 1만원짜리가 있으며 사회과학관 앞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모금활동도 함께 진행중이다.

▶ 1면에서 이어짐

결의 안건 순서에서는 '재단공영화추진을 위해 각 단위별로 학생들을 모아 정기학생총회를 성사시키자'는 것과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 파병을 막자'는 것을 결의·통과했다.

이번 전학대회를 마친 후 부총학생회장 강정훈(동양·중국어 98)군은 대표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두고 "아직까지 교내에 회의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못한 것을 느꼈다.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서기단장을 맡은 행정학과 학생회장 고현호(01)군은 "전학대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계속 진행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학내 대의원이면 학내 민주적 체계를 위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총학 4대과제를 결의 할 수 있었던 자리여서 뜻깊었고 4대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힘써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배움터

구분 / 요일	학생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월 (6일)	두부된장찌개 (₩1,300)	김치비빔밥 (₩1,400)	카레돈까스덮밥 (₩1,600)	사골우거지국밥 (₩1,400)	갈비탕 (₩1,600)	우동 (₩1,000)
화 (7일)	북어국밥 (₩1,500)	오무라이스 (₩1,500)	휘시커틀렛 (₩1,600)	닭개장 (₩1,400)	상추불고기비빔밥 (₩1,500)	짜장면 (₩1,000)
수 (8일)	생선조림백반 (₩1,000)	닭온반 (₩1,600)	볶음밥&불고기 (₩1,600)	소고기국밥 (₩1,500)	소고떡볶음덮밥 (₩1,500)	스파게티 (₩1,200)
목 (9일)	순두부찌개 (₩1,300)	팔보채 (₩1,400)	가재커틀렛 (₩1,600)	설렁탕 (₩1,500)	짜장정식 (₩1,500)	짬뽕 (₩1,000)
금 (10일)	코다리찜백반 (₩1,000)	비프하이라이스 (₩1,400)	김치볶음정식 (₩1,500)	얼갈이곰탕 (₩1,500)	부대찌개 (₩1,500)	잔치국수 (₩1,000)

용인배움터

구분 / 요일	어문관			후복관		
	한식	양식	분식	일품	분식	양식
월 (6일)	갈비탕 (₩1,800)	돈까스정식 (₩2,000)	라면 (₩1,200)	불고기비빔밥 (₩1,800)	어묵우동 (₩1,300)	스파게티돈까스 (₩2,000)
화 (7일)	카레라이스 (₩1,800)	새우까스 (₩2,000)	우동 (₩1,300)	참치김치볶음밥 (₩1,800)	라볶이 (₩1,300)	특설렁탕 (₩2,000)
수 (8일)	마파감자덮밥 (₩1,500)	생선까스 (₩2,000)	자장면 (₩1,300)	콩나물밥 (₩1,800)	잔치국수 (₩1,300)	치킨까스 (₩2,000)
목 (9일)	불고기비빔밥 (₩1,800)	미트볼스파게티 (₩2,000)	떡볶이 (₩1,300)	돈육불고기덮밥 (₩1,800)	쟁반짜장면 (₩1,300)	모둠커틀렛 (₩2,000)
금 (10일)	김치볶음밥 (₩1,500)	오징어까스 (₩2,000)	어묵 (₩1,300)	떡만두국 (₩1,800)	라볶이 (₩1,300)	오무라이스 (₩2,000)

2003년 2학기 서울캠퍼스 FBS 외대교육방송국 방송 편성표

	아침방송 (08:20~08:50)	점심방송1 (12:05~12:25)	점심방송2 (12:25~12:50)
월	아침의 산책 & 캠퍼스 네트워크	웰컴 투 더 범인타운	맛있는 재즈이야기
화		로그 인 스포츠	흐르는 선율위에
수		FBS 드라마	이문동 기행(12:40~12:45)
목		FBS 뉴스	바른말 고운말(12:35~12:45)
금		영화의 인생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오후

[분석] 이라크 파병 등 전쟁에 관한 대학생 여론조사

대학생 70%, 이라크 파병 반대

명분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동조하고 싶지 않아 67.6%

미국의 패권정책 우려… 한반도 전쟁위기 느껴진다

미국의 이라크 파병요청으로 다시금 '전쟁과 평화'에 대한 화두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지난 4월에 이어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토론회 등을 비롯한 반전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부대신문 편집장 정우윤)에서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대학생 1033명을 대상으로 이라크 파병과 함께 6자회담 이후 북-미관계 전망 등 전쟁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가의 여론을 살펴보았다.

▶조사기간; 9월 20일~25일
▶조사대학; 한국외대, 한양대, 부산대, 경기대, 충남대, 경북대, 전남대 등 40여 대학
▶ 신뢰도: 95%
▶ 오차범위: ±3%

편집자

이라크 파병

대학생들 70%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6%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에서 전국의 대학생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명분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동조하는 행위이므로"가 67.6%로, "파병 지원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9.3%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학생들은 경제적 실리관계를 떠나,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을 명분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파병을 찬성하는 의견은 전체의 20.3%로 이에 응답한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55.2%가 "한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15.7%)"는 의견이 "우방인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12.2%)"는 입장보다 앞섰다. 즉, 대학생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 속에서 파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파병을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전쟁위기와 평화

그렇다면, 파병은 명분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동조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대학가에서 6자회담 이후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67.6% 한반도 전쟁위기 '실감'
미국의 패권정책으로 북-미관계 악화된다 39.5%

대학생 67.6%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대학생의 북-미관계의 긴장국면에 대한 위기의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 전쟁위기설에 대한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크다(10.7%)", "가능성 있다(56.9%)"라고 답해, 전혀 못느낀다(18.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잘모르겠다는 13.2%였다.

이렇게 북-미간의 대결구도가 고조되는 원인으로는 "북한이 핵개발로 미국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18%)"보다 "미국 패권유지 위한 정책(39.5%)"이라고 응답해, '북한의 핵개발'보다 '미국의 패권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요소로 꼽아 강한 반감을 드러냈으며 이로 인한 한반도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해법으로 대학생들은 첫 번째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화해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44.75%)을 꼽았고, 두 번째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33.2%)"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선(先) 핵포기 선언"은 13.7%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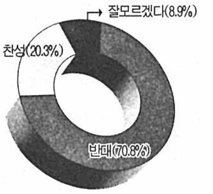
대학생들은 이러한 북-미관계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입장에 무조건 동조하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66.4%가 응답했으며, "남북교류 사업 확대를 통해 민족공조를 강화해야 한다(22.0%)"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라크 파병과 6자회담 이후 북-미관계를 통해 본 '전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부시정권이 집권한 이후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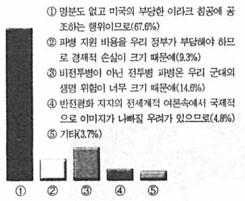
특히,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해 '북의 핵포기'가 아닌 '미국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2차 6자회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재, 주목할 만하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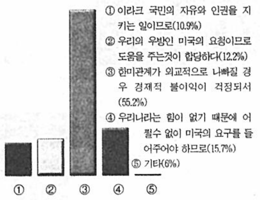
· 이라크 파병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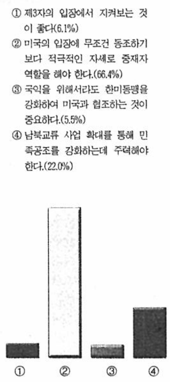
· 파병에 반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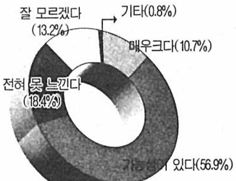
· 파병에 찬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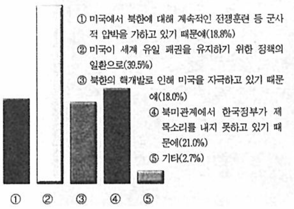
· 북미관계에서 한국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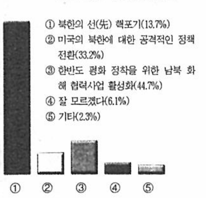
· 한반도전쟁위기설에 대해 느끼는 체감도는?



· 북미간의 긴장상태 고조로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원인은?



·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북미간의 군사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설

정부, 이라크 파병 여론몰이 중단해야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문제와 관련 정부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일보〉는 폴 월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2일 한국 정부로부터 이라크 파병 방침을 통보 받았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각종언론에서 한국군 주둔 지역이 이라크 북부인 모술이 될 것이라고 보도되는 등 여하튼 정부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게다가 정부관료들이 잇따라 파병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진표 경재부총리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파병을 해야한다"라고 주장했고 한승주 주미대사는 "조건없이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영길 국방장관까지 나서 "파병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자"라고 밝혔다. 이는 파병문제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의 정부방침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정부가 전투병 파병에 앞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한편, 지난 1일 노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파병문제 검토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확신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조건삼아 파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6자회담의 결과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의 원활한 진행과 파병을 맞바꾼다 하더라도 6자회담이 정부의 생각처럼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라크인들의 반응도 걱정이다. 이라크인들의 입장에 서지 않고 철저히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결정이 이라크인에게 달가울리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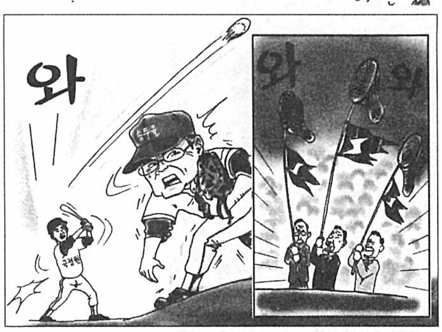
우리는 미국이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라고 우리나라 정부에 의사를 타진한 이래, 줄곧 전투병력의 파병을 반대해왔다.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고 테러조직과 연계돼 미국에 위협적이라며 벌인 이라크 전쟁은 그 명분과 정당성을 잃은 지 오래다. 부시 미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한지 이제 다섯달이 지났지만 미국은 이라크 내에서 대량살상무기를 한 점도 찾지 못했다. 또한 이라크인들을 후세인 정권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명분도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외신보도와 이라크 현지를 다녀온 사람들에 따르면 이라크인들은 미국을 후세인을 대체하는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의 주도아래 구성되는 다국적군을 이라크인들이 환영할리는 만무하다. 만약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유엔의 깃발아래 평화유지군의 성격으로 파병한다면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대로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요청은 거부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대·만·평 <17>

허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4학년도 전기 신입생 특별전형 모집

1. 모집인원 석·박사 학위과정별 각 학과 약간 명
1. 모집분야 본교 홈페이지(http://www.hufs.ac.kr) 공지사항 참조
* 2004학년도 전기 신설학과
석사학위 : 중동어문학과
박사학위 : 한국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러시아학과, 동유럽어문학과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또는 면접)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
5.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2003. 9. 29(월)~10. 2(목)
본교 홈페이지(http://www.hufs.ac.kr)
나. 원서접수 : 2003. 9. 29(월)~10. 2(목) 본 대학원 교학처
다. 전형일시 : 2003. 10. 18(토) 10:00
6. 기타사항
가. 입학지원서류 우편접수는 2003년 10월 2일(목) 17: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나.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다. 기타 입학전형관련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교학처로 문의 바람.
* 주 소 :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 전 화 : (02)961-4350, 4351, 4104, 4260, 962-7117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학년도 모집요강
21세기 유망직종 통역 번역사의 요람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장학금 수혜율 75%
8개언어 장단기 해외연수 혜택
국내 최고의 교수진

- 2004학년도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 안내 -

1. 모집학과
▶ 2개언어과정 : 한영과, 한불과, 한독과, 한노과, 한서과, 한중과, 한일과, 한이과 (8개학과)
▶ 3개언어과정 : 한영불과, 한영독과, 한영노과, 한영서과, 한영중과, 한영일과, 한영이과(7개학과)
2. 전형일정
▶ 입학지원서 접수 : 2003. 10. 8(수) ~ 10. 17(금)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입학지원 서류 제출: 2003. 10. 8(수) ~ 10. 20(월) "토요일은 휴무"
▶ 1차시험(필답) : 2003. 11. 1(토)
▶ 1차 합격자 발표 : 2003. 11. 7(금)
▶ 2차시험(필답 및 구술): 2003. 11. 8(토) ~2003. 11. 9(일)
▶ 최종합격자 발표 : 2003. 11. 14(금) 15:00
3. 특성
▶ 2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통역번역 전문교육기관
▶ 국제적 수준의 국제회의에서 활약할 최고의 전문통역사, 다문화간 교류의 일익을 담당할 번역사를 양성해 내는 전문대학원
▶ 국내최초, 유일의 통역번역학 박사학위과정 개설(1999. 11)하여 세계적 최고 수준의 전문학자 양성기관
▶ 우리나라 최고의 통역, 번역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교수진에 의한 전문교육
▶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로 부터 아시아지역 유일의 통역/번역교육기관 인정 대학원
▶ 세계 통번역 교육기관인 파리통역번역대학원, 미국 몬트레이, 대만국립사범대 대만보인대학 통역번역대학원 등과 교류협정
▶ 세계 최고의 첨단 교육시설 구비로 유능한 인력양성의 효율화
▶ 세계수준의 국제회의장 포함 6개의 동시통역시설 및 24개국의 61채널의 정치, 경제사회, 문화 등을 위성으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영상실 및 강의실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등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gsit.hufs.ac.kr/
TEL :(02) 963-0558, 961-4112~3(교학부)
FAX :(02) 965-4792
* 전철1호선 외대앞역(구 휘경역)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주간)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산업자원부 주관
"e비즈니즈 대학원 지원사업" 대학원 선정
-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 경영학 및 소프트웨어공학 전문인력 양성

1. 석사학위과정 각 전공부문 약간명
▷ 경영정보학과 - MIS, 재무·회계, 운영관리, 조직·인사, 마케팅전공, 국제경영전공
▷ e비즈니스학과 - e비즈니스전공
▷ 정보통신학과 - 정보통신전공
2. 지원자격
4년제 대학졸업자(2003년 2월 졸업예정자포함),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자격자
※ 타 분야를 전공한 자도 응시할 수 있음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
나. TOEFL이나 TOEIC, FLEX(영어) 성적 우수자 및 "NexGen 2003 논문대상전" 입상자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함
4.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접수 : 2003년 10월 1일(수) ~ 10월 10일(금) 17:00까지
나. 전 형 일 시 : 2003년 10월 17일(금) 오전 10시
5.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출력하며 3×4cm 사진 2매 부착) 1부
나. 대학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졸업증명서는 교육부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다. 입학 후의 학업계획서(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라. 전형료 입금 확인증 사본
6. 전형료
가. 석사과정 : 70,000원
나. 제일은행 계좌(132-2-063669 예금주 한국외국어대학교)
7. 기타
가. 주소 :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대 경영정보대학원 교학부
나. 전화 : ☎ 교 학 부 : 965-7046, 961-4119 구내(4119)
▷ Homepage => http://www.gsmis.hufs.ac.kr
* 입시설명회 : 2003. 10. 7(화) 13:00 본 대학원 건물4층 41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실습 신청서 및 승낙서 제출

1. 제출대상
2004학년도 제 1학기 4학년 재학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 중인 학생
2. 제출서류
교육실습 신청서 및 승낙서 각 1부
3. 제출양식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홈페이지 ⇨ 학교안내 ⇨ 대학 ⇨ 사범대학 ⇨ 서식함)
4. 신청서 접수
2003. 9. 29(월) ~ 10. 10(금)까지
5. 승낙서 접수
2003. 10. 13(월) ~ 12. 31(수)까지
6. 제출처
사범대학 교학과 또는 용인캠퍼스 교무과
7. 우편접수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사범대학 교학과
(FAX 02-965-7047)

※ **실습학교 선정** : 교육실습 신청 학생은 교육실습 협조 공문(2003. 10. 13 배부예정)을 사범대학교학과 또는 용인캠퍼스 교무과에서 수령하여, 본인의 모교 또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서 승낙을 받아 **"교육실습 승낙서"**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범대학교학과 또는 용인캠퍼스 교무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3. 10

사 범 대 학

4명의 유학생, 배려없는 외대를 말하다

“수강신청이 입학시험보다 더 어려웠어요”

“입학 이후 학교측의 배려가 전혀 없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학교에는 다른 국적을 기진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약 700여명이고 교환학생이 16명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학교 당국의 배려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한 까닭에 외국인 학생들이 겪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외대학보에서는 우리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4명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았다. 편집자

지난 3일(금) 개천절. 휴일이라 취재요청을 하면서도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 학생들의 고충을 담겠다는 기획의도 때문이었을까? 중국에서 온 우원원(사범·한국어교육 03)양과 장혜영(사회·정행계열 03)양 그리고 일본에서 온 재일교포 전승(동양·중국어 00)군과 배문성(동양·중국어 00)군. 외국인 유학생 4명 모두는 쉽게 인터뷰를 허락했다. 화창한 휴일 오후 4시 이들을 만났다.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는 그들의 외대 입학 이유.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어를 1학년 때부터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외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이름이 가지는 이미지였다고 한다. “외국어대학교라서 외국인이 많고 또 그만큼 외국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많을 줄 알았다”는 우원원양은 입학 이후 조금 실망했다고 한다.

우양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들에게 외대를 다니는 외국학생으로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 것은 “입학 이후 첫 학기를 맞이할 때 수강신청”이었다고 한다. “지난 학기는 같은 과 친구들이 수강신청을 도와줘서 그나마 신청은 할 수 있었다”는 장혜영양은 “수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00학번인 전승군 역시 1학년 당시 첫 수강신청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데다 사전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수강신청 할 수 없었다”고 그때를 회고했다. 우원원양 역시 “수강신청 하는 것이 입학시험보다 더 어려웠다”며 친구들이 없었다면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우양의 ‘입학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수강신청’이라는 말에 전승군은 “우리 학교는 입학만 시켜놓고 그 이후에는 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며 “입학하고 나서 작은 안내책자라도 하나 줬으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학교측이 조그마한 배려도 하지 않음을 아쉬워했다. 배문성군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외대는 세계 각 국의 언어를 전공한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각 국의 언어로 된 조그만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거창한 배려보다 조그만 배려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첫 수강신청을 할 때 도움을 줬던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원원양은 “한국친구들의 배려 덕분에 그나마 수강신청을 했지만 다른 한국 친구들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부탁하기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우원원양의 이야기에 장혜영양은 “다른 학교에서는 외국 학생에게 한국 학생 한 명씩을 소개해줘서 부담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해준다고 들었다”며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디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승군 역시 “처음에 한국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려웠다”면서 “동아리를 들지 않는 이상 한국친구를 사귈 기회가 좀처럼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배문성군은 “연대를 가보니 외국인들을 위한 까페가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 친구들을 부담없이 편하게 만날 기회가 많았다”며 우리 학교에도 그런 까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배군의 연대 ‘글로벌 라운지’ 이야기에 나머지 3명의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 만드는 본관에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들에게 국제관 2층 애경홀에 마련된 ‘인터내셔널 라운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처음 듣는 소식”이였다. 외국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국학생들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는 그들은 외국 친구들끼리 만날 때에도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을 못한다고 한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나오니까 부끄러워서 공부 열심히 한다는 말도 못해요”라는 장혜영양은 수업시간 노트 필기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전했다. “항상 옆의 친구한테 노트를 빌려야 해요. 특히 수업교재가 따로 없는 수업은 정말 힘이 들어요. 교재가 있으면 집에서 공부해서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만 없으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라며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전승군 역시 “1학년 때 19학점을 신청했는데 결국 12학점 밖에 따지 못했다”며 “한국학생처럼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외국학생이 좋은 학점을 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입학이후 아무런 배려없이 알아서 학점따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라고 전했다. 나머지 2명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했을 때 각오는 했지만 그렇게 교재가 없는 경우는 정말 막막하다”며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또한, 그들은 외국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많지 않음을 참 아쉬워했다. 전승군은 “외국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며 “한국어는 입학전에 어학당이나 학원에서도 배웠던 것이고 생활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특한 강의가 개설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우원원양 역시 “한국전통문화 같은 것은 쉽게 배울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강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해 외국 학생들을 고려한 특별한 강의가 없음을 섭섭해했다. 우양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혜영양도 “그래서 한국민속문화라는 교양수업을 들었는데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다”며 외국 학생들을 배려한 한국학 수업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첫 수강신청은 입학시험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그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한다”며 “앞으로 들어올 외국 유학생 후배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승군은 “일본인 유학생들끼리 후배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본어 홈페이지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만들 수 없었다”며 답답한 외국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그들과의 대화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진정 우리 학교의 이름이 맞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나의 코드는 세계에 맞춘다’는 우리 학교의 광고 카피가 학내에서 먼저 실현되는 것은 정녕 어려운 일일까?

글·사진 : 김용훈 기자

“다른학교 버디 시스템,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학교도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해요”

“일본 유학생들이 일본어 홈페이지를 스스로 만들려해도 학교 측이 거부하던 걸요”

너희가 우리를 아느냐?

우원원

중국 산둥성에서 한국에 온지 1년이 됐다는 우원원양은 올해 우리학교 한국어교육과에 입학한 새내기이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을 잇는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다.

전승

일본 효고에서 온 전승군은 2000년도에 우리학교 중국어과에 입학했다. 그의 목표는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중국 쪽에 진출하는 것이다.

배문성

일본 오사카 출신인 재일교포 배문성군은 우리학교 중국어과 00학번이다. 한국에 온지 벌서 4년이 되었다는 그는 1학년 첫 수강신청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한다.

장혜영

작년에 한국에 왔다는 장혜영양은 중국 산둥성 출신이다. 정치행정계열인 그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는 중국을 이끌 정치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유학생 친구들을 만난 후

학보에도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는 중국인 유학생 친구 속가(동양·일본어 02)군을 통해 외대에서 유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원원양, 장혜영양, 전승군, 배문성군 이들 4명이 전해준 외대에서 유학생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솔직히 적잖은 충격을 줬다. 명실공히 한국에서 외국어 분야의 최고 대학으로 자부하는 우리학교가 유학생에 대한 배려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그들은 거창한 배려를 원하는 것이 아닌데 학교측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사실상 ‘인터네셔널 라운지’는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그마한 배려였다. 그들의 말처럼 ‘외대’인 우리학교가 그들을 위해 각 국의 언어로 된 작은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외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며 자신도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현재 학교측이 마련하고 있는 외국학생 배려 프로그램들을 지켜보면서 좀 더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기자 역시 외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정녕 외대스러운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김용훈 기자 oedae01@hanmail.net

이라크 전투병 파병 저지를 위한 전대기련 공동광고

파병...

하시렵니까?

얼마전 실시한 전국 대학생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분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동조하고 싶지 않아서’가 67.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 놀음에 진짜로 ‘한 몫’ 하시렵니까?

파병·전쟁반대, 이제 전 세계인의 바람입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다른 학교는

외국학생들을 위한 지원 이뤄져야

연세대, 교환학생들을 위한 공간도 있어 이대는 버디제도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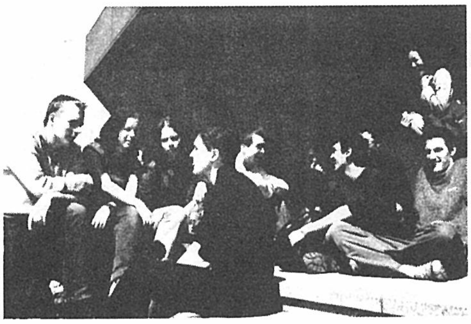
앞선 기사에서 언급한 외국인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연세대와 이화여대 두학교의 사례를 알아본다.

연세대는…

연세대학교는 학교측의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까지 더해져 외국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세대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한 '글로벌 라운지'이다. 이곳은 일반 연세대 학생들과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영어 우선사용구역(English Zone)으로 차를 마실 수 있는 일종의 학내 카페의 모습을 띄고있다.

글로벌라운지에는 멘토스클럽과 학생운영단으로 나누어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멘토스클럽은 교환학생에게 도우미역할을 하는 버디를 소개 시켜주면서 교환학생들의 국내생활의 적응을 돕고 있다.

또 학생운영단은 홈스테이와 호스트패밀리제도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모두 잘 이뤄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학교측의 지원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세대학교에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환학생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호스트패밀리 제도와 홈스테이이다.

홈스테이는 교환학생들과 연세대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호스트패밀리제도는 학생 가운데 관심있는 사람이 직접 집으로 교환학생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문화를 보여주고 알리는 것이다. 홈스테이 프로그램 담당자인 국제교류부 소속 조교 형시원(연세대·상경계열 99)씨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3가지 운영방식중 하나인 버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멘토스클럽 회장 정지영(연세대·경제 00)군은 "버디제도는 언어교환을 추구하기 보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생활의 적응을 돕고, 나은 한국의 이미지와 연세대의 이미지 전달이 더 주된 목적"라며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한달에 한번정도 정기적으로 자치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했다.

글로벌라운지 어드바이저 및 매니저를 맡고 있는 설민종씨는 글로벌라운지의 탄생목적에 대해 "국제학생들이 한국을 느껴본다는 경험적 요소가 중요하고 또 대학당국으로선 이런 시설을 마련해 교환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주면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나가려는 비전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라운지의 성공에 대해서는 "연세대학생들의 교류의지와 교환학생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특히 강조했다. 또 "이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의 주체는 바로 '학생들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대학의 투자이유는 더욱 분명한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곳에서 만난 교환학생 Ron Yalon(21세)씨는 버디제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핸드폰을 개통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준다거나 하숙집을 얻을 때 등등 생활전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함께 만난 Kenyon Wallace(22세)씨는 "한국 문화를 실제로 생생하게 겪어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다"며 "사실 한국에 온 이유가 학업 또는 학문에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한국인들에 대해 알고싶고 문화를 겪어보고 싶어서였는데 그것과 너무 잘 맞는다"고 글로벌라운지의 제도를 평가했다.

그럼 이화여대는?

그럼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는 어떨까. 이화여대의 경우에도 '이화 피스버디'라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목적은 연세대의 경우와 유사한 '교환학생들의 한국생활을 도와주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스버디'의 회장 김연실(이화여대·비서학과 02)양은 "교환학생들 생활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버디제도를 소개했다.

함께 있던 교환학생 반둥예(23세)씨는 버디제도의 장점에 대해 "이대 안에서 접하는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 항상 버디에게 조언을 구한다"면서 "만약 버디제도가 없었다면 생활의 자질구레한 것 하나하나도 제약이 많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함께 만난 버디 이은아(이화여대·영어과 02)양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점이 즐겁고 보람있는 요소"라며 "외국인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특히 재미있는 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제도가 없었으면 교환학생들이 어땠을 것 같으냐 라는 질문에 "세세한 부분들, 예를 들어 공중전화카드를 산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등등 모든 부분이 불편했을 것이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밝지 못했을 것 같다"며 "우리가 하는 버디프로그램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주는 중요한 활동이기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화여대의 '피스버디'의 경우도 동아리가 아닌 교내 기구로서 행사진행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현재 외대는 위에 언급한 연세대와 이화여대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외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대학당국에서 하루빨리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외대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많은 교환학생과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보다 나은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승열 기자
park984@hanmail.net

외구인 유학생 처우점검

외국학생들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현재 우리학교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 700여명과 16명의 교환학생이 재학중이다. 앞선 기사에서는 외국 학생들이 겪는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돌어봤다. 그렇다면 학교측에서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대외협력처를 찾아가 봤다.

대외협력처에서는 외국 학생이 우리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면 연수원에 들어가 한국어 과정을 먼저 받는다고 한다. 또한 지난달 1일에는 외국 학생들을 관리하는 국제 학생사무소를 만들었다. 현재는 대외협력처 안에 있는 상태지만, 신축 건물로 옮기게 되면 사무실이 따로 만들어 질 예정이다. 국제학생사무소에서는 외국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참여의식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 대학 당국은 "지난달 19일(월)에는 첫 미팅을 가졌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며 "이런 만남으로 인해 외국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학교 학생과 외국 학생사이에 현지문화와 언어를 서로 배우는 버디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학교생활 정보를 얻기 힘들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는 한국어판과 영자판 두개가 존재한다. 그러나 영자판 부분에는 학교에 대한 소개만 있을 뿐 외국학생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외국 학생들은 수강신청하는 방법과 도서관과 시청각실등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대학 당국은 대외협력과에 외국인 학생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 외국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야하는 어려움과 한 선생님이 몇 백명의 외국 학생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대학 당국은 "현재 외국 학생들을 위한 영어판 안내책자가 만들어졌다"며 "좀더 수정을 하여 외국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라며 안내책자 부분에서 영자판 뿐만 아니라 외국학생들을 좀더 배려하는 다국어판의 안내책자를 준비하였으면 한다.

외국 학생들을 위한 수업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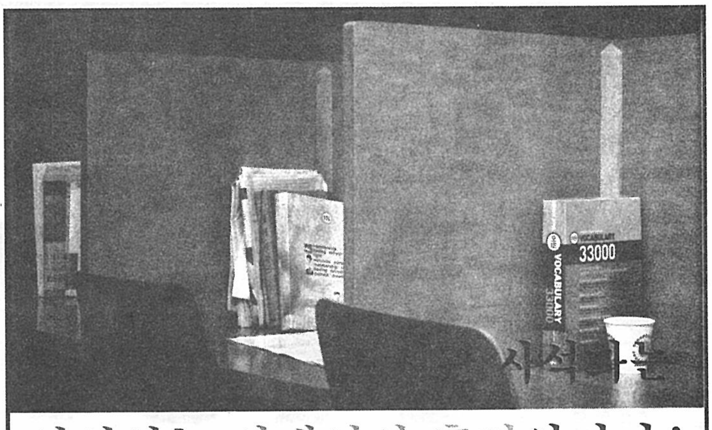
현재 외국 학생을 위한 수업은 한국어 강의가 전부이다. 외국학생들은 한국어외에도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와 관련된 수업을 선호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외국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수업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수업은 학부 교양수업에 있기는 하나 한국 학생이 듣기에서도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높아 외국 학생들이 힘들어하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대학 당국은 "이번 여름에 외국 학생들을 위해 진행된 '한국에서 여름방학 보내기' 과정에 16개정도의 과목을 정규과정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외국 학생들만의 공간 부족

현재 외국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타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어학당건물에 존재하는 공간도 책상만 두 개일 뿐 전혀 배려가 없다고 한다. 대학 당국은 "지난 7월 7일 서울배움터 국제관 2층 애경홀 로비 50여 평을 색다른 개념의 어학실습 공간인 인터내셔널 라운지를 개설했다"며 "용인배움터에도 인터내셔널 라운지공간을 개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학 당국은 "앞으로도 외국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은희 기자 dndblove@hanmail.net

국제관 2층 애경홀에 새로 개장한 '인터네셔널 라운지'이다.



양심없는 외대인의 흔적입니다!

이곳은 모두가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누구 하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14000 외대학우의 이름으로
매일 책 치우기를 하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동행취재기 - 김성옥(김형직 사범대 4학년)양이 말하는 북의 대학, 대학생

"취업걱정? 일 없습네다!"

4박 5일간 북녘 유적답사단과 함께 한 북측의 안내원들. 그 가운데 유독 낯이 익은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지난 8월 대구 U대회 북측 응원단으로 많은 이목을 끌었던 '김성옥'이라는 이름의 북녘 여대생.

남녘의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안내를 자원했다는 그녀는 '남남북녀'라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느끼게 했다. 흰 저고리에 무릎아래까지 내려오는 검은 주름치마를 입은 그녀는 단아하면서도 참 당찬 인상이었다. 행운이었을까? 그녀와 같은 버스, 그것도 옆자리에 앉게 된 연유로 그녀에게 북녘 대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다.

"취업걱정, 일 없습네다'

김형직 사범대 4학년인 그녀는 평양에서 나고 자란 평양 토박이였다. 김형직 사범대 체육학부에서 수영을 전공한다는 그녀. "대부분의 김형직 사범대생들은 대학졸업 후 교원이 됩네다. 사범대 학생들은 교원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오는 곳이란 말입네다. 때문에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조국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합네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모든 대학생들은 무상으로 대학교육을 받은 후 자신의 전공분야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새내기때부터 취업걱정을 하며 영어공부에 매달리는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며 문득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우리와 모든 일정을 함께 했다. 다행히도 방학이란다. "여름방학은 보름이고 겨울방학은 한 달입네다. 너무 길지 않습네까?" 그녀의 질문은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남녘의 방학이 두 달 정도라고 말해주니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방학이면 농촌으로 가서 일손을 돕곤 합네다. 그 뿐 아니라 공장으로 생산실습을 나가기도 합네다." 북녘의 학생들은 짧은 기간의 방학중에도 여가를 즐기기보다 나라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었다. "평양에서 남포의 서해갑문으로 가는 도로인 청년영웅도로는 제가 중학교때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도로입네다"라는 그녀의 말은 방학기간 동안 조국을 위해 큰 일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보통 지하철을 타고 7시까지 학교에 갑네다. 일찍 가서 동무들과 청소도 하고 학습준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럽네다. 그리고 주말에는 인민대학습당에 가서 교양서적을 읽거나 학습을 하거나 합네다." 보통 5시쯤 일어난다는 그녀의 표정은 아주 신이 나있었다. "그럼 여가시간에는 도대체 뭘 하세요?" "뭐, 공부합네다."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요? 사실 남녘에서는 학점을 따기 위해서 시험기간에만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대학교육의 목표는 민족간부 육성입네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조국을 위한 것이란 말입네다." 그래서인지 북녘의 대학은 누구든지 조국을 위해서 학습이 필요하면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한다.

북녘의 대학생들도 미팅을 할까? 그녀는 미팅의 개념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남성 동무들과 만나서 함께 어울려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하는 그런 만남이 가끔씩 있다고 한다.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내심 궁금했다. "없습네다!" 대답하는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운 홍조를 띄고 있었다. "대동강변이 연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데이트 코스라면서요? 성옥씨도 남자친구 생기면 여기서 데이트 하겠네요?"라는 내 장난 어린 질문에 "동무들과 와서 산책해도 참 재밌습니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장한 일 한 남측 학생들을 왜 잡아 가둡네까?'

"학생들이 장한 일을 했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왜 잡아 가둡네까?" 대화 내내 한번도 미소를 잃은 적이 없는 그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따지듯 물었다. 얼마 전 있었던 한총련 학생들의 '스트라이커 부대' 투쟁 이후 학생들이 겪는 고초는 그녀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남녘 학생들의 투쟁을 잘 알고 있다"는 그녀는 미군의 장갑차에 운명을 달리한 미선이, 효순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분노합네다. 미선이, 효순이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우리 평양에서도 광장에 모여 촛불시위를 했었습네다"라는 그녀는 자신도 여동생이 있다며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가 합치면 더 큰 하나 아닙네까?"라며 "조국통일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U대회 때 남측을 방문한 소감을 묻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문득, 반북시위로 논란이 되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남측 대학생들도 보수단체들의 그런 행동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하자, 그녀는 생긋 웃으며, "남측 동포들이 뜨겁게 환대해주어 너무 고마웠다"며, 특히 "우리는! 하나다!"라는 응원구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파도타기로 공동응원을 펼쳤던 감동'들을 회상하며 즐겁게 이야기해주었다.

"대구에서 남측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는 그녀. 나 역시 그랬다. 내가 비행기 안에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며 "꼭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해주던 그녀의 모습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다.

김용훈 기자 oedae01@hanmail.net

취/재/후/기

사회부 김용훈 기자

"너 평양 한번 다녀올래?" 추석 전 편집장의 전화를 받고 난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평양이라? 지난 8월 금강산을 다녀온 후 막연히 다음엔 평양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였다. 막연했던 그 소망은 의외로 쉽게 이뤄졌다. 그러나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당장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 막막했다. 그래서 실시한 설문조사. 독자들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북의 대학생을 그리고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는 평양시내를 꼽았다. 어느정도 실마리가 보이니 비로소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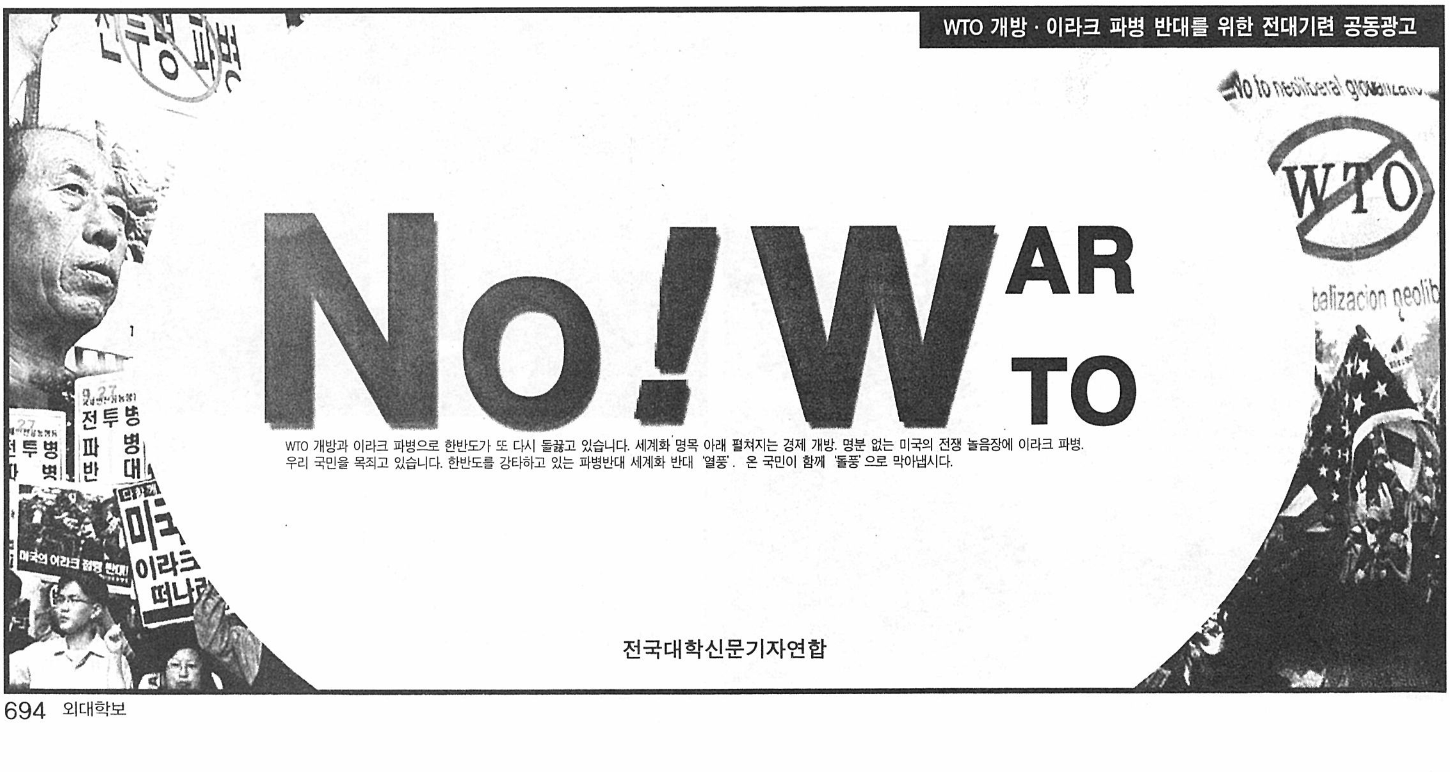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이것은 내가 북을 방문하기 전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이다. 반백년 분단의 세월은 남측의 평범한 대학생인 나마저 색안경을 끼게 했던 것일까? 이북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도 나는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로부터 진실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기우였다.

4박 5일간 북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깊숙이 들었던 생각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곳은 철저히 '사람'으로 움직이는 사회였으며 그곳에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의 주인이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나', '나를 위한 우리'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라는 것을 말했다.

묘향산 보현사에 들렸을 때의 일이다. 보현사를 둘러본 후 나는 평소처럼 담배를 피운 다음 버스에 올랐다. 아무런 느낌이 없이 앉아있던 나는 안내원 선생에게 "어찌 꽁초를 땅에 버리느냐?"며 혼이 났다. 처음엔 왜 그렇게 역정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내 곳곳에서 낙엽을 쓰는 시민들을 본 후 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이북은 버리는 사람 따로 없고 치우는 사람 따로 없는 사회였다. 내가 보현사 절간 앞 주차장에 꽁초를 버린 것은 내 집 안방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의미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 걸?" 내가 북을 가기 전 주위 어른들이 했던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북 동포들은 이제 남한의 경제력을 인정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남한보다 부족한 상황이면서도 남측에서 온 동포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런 그들의 성의 덕분에 나는 편안한 4박 5일을 지낼 수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치부를 숨기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자 한다고 욕할 수 있을까? 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소박한 인심을 생각했다. 없는 살림에도 객이 오면 정성스레 상을 차려 내오던 우리네 인심 말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을 원하는 데 남북이 따로 있을까?' 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통일은 어떤 다른 소망보다 우선하는 듯 했다. 이는 얼마 전 실시한 외대생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다소 실망적인 수치를 생각하게 했다. "민족 통일사에 자욱을 남긴 청춘이 됩시다." 남북학생상봉모임에서 평양기술대학 최진석(19세)군이 내게 했던 말이다. 그를 보면서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음을 다시금 느꼈다.



외대학보 837호 비평

외대인과 발맞춰 나가기 위해

지난주 서울배움터를 뜨겁게 달궜던 훕스페스타(HUFS FESTA)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리학교만의 특색있는 행사이니 만큼 외대학보 836호에서는 주제기획으로 이를 다루었다. 문화부기자인 나에게 이번 행사는 욕심나는 기사거리였지만 그 어느 기사보다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었다. 훕스페스타(HUFS FESTA)라는 큰 행사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의 의견과 행사를 준비한 총학생회의 의견을 동시에 들어봤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행사의 문제점과 좋은 점을 찾아 이번 행사를 평가했다. 내 기사를 본 한 선배는 '취재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기사에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나는 학생들의 생각을 최대한 많이 들어봐야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의욕과 욕심으로 학생들을 인터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정작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쓸 때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을 토해내는데 급급했던 것 같다. 나는 사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는 심도 있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학생들이 느끼는 이번 행사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개막제와 폐막제를 제외하고는 참가할 만한 행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총학생회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몇몇 행사들이 취소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획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준비된 것이, 각종 행사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될 것이다. 나 또한 그러했다. 행사에 직접 참가하려기 보다 멀리서 행사를 바라보려고 했다.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뿐 행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여러 학생들과 행사를 좀 더 관찰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야 하는 기자인 내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나의 자세 때문에 행사 중간 중간에 터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나 에피소드를 잡아내지 못해, 좀더 생동감 넘치는 기사를 쓸 수 없었다. 문화부 정기자로 발령받은지 한 달이 지났다. 아직까지 나에게는 기획잡기부터 원고마감까지 처음 접하는 것들이 많아 순간순간 놀라기도 한다. 학보사 기자 생활에 익숙해지기에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배워가는 과정이고 이번 기사 또한 그런 과정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배우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외대인과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문화부 기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조혜원 기자

훕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4매 내외 / 마감 : 매주 금요일 자정

투고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전자우편 oedaepress@han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기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훕산(HUFSan)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의 준말로 외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도서관 장서 확충해야

며칠 전에 훕스라이프에 도서관에 너무 책이 없다고 글이 올라와 있었다. 비단 그 글 말고도 주변에 있는 친구나 후배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마땅히 볼만한 책이 없고 또 보고 싶은 책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다. 학교에서 발표하는 사서관련 자료를 보면 타 학교에 비해서 장서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다. 그런데 학생들은 왜 도서관 책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가장 쉽게 떠 올릴 수 있는 것은 학교의 과 구성이다. 외대의 상당 수 학과는 어학관련과이다. 그런데 이들 과의 서적은 영어과나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과 학생이 쉽게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절대적 장서 수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막상 볼만한 책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서울캠퍼스만 놓고 볼 때에는 종합대학이긴 하지만 인문과학대가 없다. 그래서 철학, 종교학, 역사학, 심리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학문 영역에 관련된 책이 많이 부실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과학 쪽에서도 사회학, 지리학, 사회복지학같은 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이들 영역 쪽 서적도 비슷한 실정이다. 자연과학 분야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서관 측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본적인 수요가 없으니 학생들이나 교수진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이들 분야의 책은 구입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학교 측에서 좀 더 도서관재정을 확충하고 각 배움터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학과 관련 서적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해당 학회나 또 관련 기관에 필요하거나 권장될만한 서적이 무엇인가 조언을 받아 대대적으로 구매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 차원에서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없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서목록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도서구입신청란에 기재를 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일인당 3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보통 신청후 서가에 비치되는 것까지는 3~4주가 걸리게 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한 달에 거의 12권까지 신청해 보았고 품절이 되거나 출판사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거의 도서관에 들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생들은 도서관에 볼만한 책이 없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어떻게하면 좀 더 양질의 도서가 도서관 서고를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측에도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으로 도서구입에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필요할 것이다.

김태국
(상경 · 경제 97)

비타민 같은 특수어과

얼마 전 내가 아는 고3 학생에게 전화가 왔다. 대학 수시를 넣는데 어떤 곳을 정하는 게 좋으냐는 내용이었다. 우리 학교의 특수어과의 전망은 어떻냐는 것이었다. 나에게 언니는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우선은 특수어과 이야기 전에 미래에 대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적성이라고 했다.

우선 자기가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어떤 일을 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거우며 결과도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라고 권했다. 다른 전망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스스로의 열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어과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자주 듣지 못한 말들이라서 더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어과는 그만큼 그런 점들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서든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그만큼 공급이 희소하다는 것을 뜻한다. 희소한 것이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이아몬드가 많았다면 아마도 그냥 돌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희소성이 주는 이익을 우선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수어과 출신은 그만큼 미개척지여서 개척할 분야가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그 나라가 그만큼 생소하므로 아직 익숙하게 할 거리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미 발전해서 그 수가 팽창되어버린 것은 앞으로 서서히 물러나고 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서서히 차고 오르면서 발전해 가는 게 역사의 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어를 전공해야된다는 뜻은 아니다.

소수어는 사람의 몸에서 아주 소량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과 같은 언어인 것 같다. 아주 소량이면서도 그 역할이 부족하면 결핍증에 걸리고 마는 것처럼 소수어도 수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평소엔 필요 없어 보이지만.

인도네시아의 국가부도 사태나 산유국에서의 석유값 인상 등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수어란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소수어를 무조건 우리나라와 경제적 교류가 적은 나라의 언어로 치부해버리는 성향이 짙다. 소수어라 칭하는 아랍어도 사용하는 세계인구는 약 13억이다. 무슨 근거로 소수어라 하는지. 소수어보다는 특수어라 칭함이 더 옳은 표현인 듯하다.

모든 사람이 잘나고 똑똑한 세상이 없듯이 특수어과도 아주 작지만 그 자리가 있는 것이다. 특수어과 중요한 언어란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언어이고 열심히 만 한다면 그 나름대로 성공할거라 생각된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일본어를 배울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이나 했을까? 그것처럼 언젠가 소수어도 영광의 언어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선
(동양 · 아랍어 03)

이라크로 파병 보내자

- 딴나라당

백지 대자보

제목 : 송두율 교수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 북한으로 보내자
-그냥-

· 즐
-초딩-

· 독일서 살다오면 다 잡아가나? 나 독일로 유학가는데 어떻게 하지?
-독어과-

· 같은 송씨! 같이 MC 보자
-송해-

· 송 교수를 통합신당으로
-김군태-

· 국정원이 또 설치는군, 옛 생각난다
-386-

· 잘!
-ㅎㅎㅎ-

· 김씨와 송씨는 같은 조상?
- 개천절맞이 단군한마디-

· 송두율 교수가 누군데? 울학교?
-관심없는데-

· 나도 먹고 살아야지!!!
-국정원장-

·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나라(?)
-열사-

· 너만 먹고 사냐? 나도.
-조중동-

명수당

인간복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김병환
〈철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생명의 탄생은 음양의 결합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믿어져 왔고, 인류에게 남녀의 결합이나 수컷과 암컷의 생식에 의한 생명 탄생 즉, 유성 생식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었다. 한자 문화권에서 남성을 양, 여성을 음이란 상징으로 나타낸 것은 주역의 영향이라 알려져 있다. 주역의 작자들은 생명을 음양 작용의 소산으로 파악하여, 생명 창생이 음과 양의 결합에 의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곧 과거 선인(先人)들의 생명 탄생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부합되는 것으로 단성 생식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그런데 당대 생명 공학의 발달은 이런 음양의 생명관에 일대 충격을 가하고 있다. 돌리의 탄생으로 촉발된 복제 문제, 특히 인간 복제가 의미하는 것은 음양의 결합에 의한 생명 창생이라는 음양 생명관이 더 이상 보편타당한 생명 창출의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인간복제는 유성 생식이 보편적 생식 방법이라 여겼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관을 요구하고 있다.

복제 문제는 실로 생명 공학이 동아시아의 전통 철학 체계에 던진 난제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다. 이런 당대 생물학의 도전에 전통 철학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전통적 사유체계가 보수적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 복제에 반대할 것이라고 추측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미라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 유가는 이런 것 대신에 내 생명의 재창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내 생명의 분신인 자녀, 또 하나의 나를 둠으로써 기독교적 부활이나 인도적 윤회가 아닌 방법으로 죽음에 대면하였다. 일반적으로 유가 철학을 특징짓는 경향이 여럿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생생(生生) 관념은 유가가 다른 여타 사상과 비교해 특징적으로 내세울만한 요소이다. 생생 관념은 가족의 영속이나 혈육의 지속성을 중요시하는 유가의 가족관에 투영되어 있다. 가족 내에서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 즉, 자녀의 출산과 재출산에 의한 생생의 관념은 전형적인 유가 철학의 주장이다. 동아시아에서 효의 강조는 생명의 영속이라는 관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큰 불효는 자식을 두지 못한 것이었다.

생생과 효야말로 유가가 인간 복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유가 철학의 지침이라 할 만한 것이다. 자녀를 두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면 다른 방법이 없고 체세포 복제만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때, 생생과 효의 원리에 의해서 유가는 인간 복제를 허용할 것이다. 공자가 다시 살아 돌아오면 현존하는 보조생식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의 경우, 예견되는 기형 등의 문제는 현재 기술로도 예측 가능하기에 부부가 원한다면 제한적으로 인간 복제를 허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체 인사 초청 모의면접

최근 신입사원 채용절차 중 면접은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이기에 주요 기업의 면접형태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취업을 준비중인 3, 4학년 학생들에게 면접에 대한 실전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형태의 면접방식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체 인사 초청 모의면접』 행사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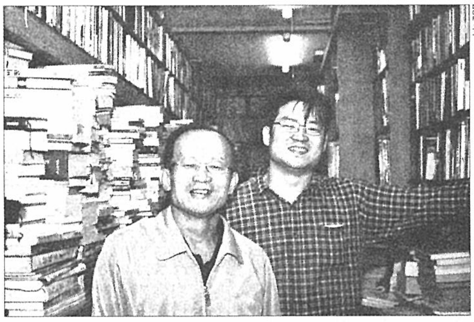
1. **일시** : 2003. 10. 7(화) 15:00
2. **장소** : 국제관 애경홀
3. **참가기업 및 면접관**
   가. 삼성전자 (지세근 차장)
   나. 롯데그룹 (황두언 차장)
   다. 한국얀센 (홍봉표 과장)
   라. 잡코리아 (정유민 이사)
4. **면접유형 및 피면접자수**
   가. 개인면접 : 2명
   나. 프리젠테이션 면접 : 2명
   다. 집단면접 : 4명
5. **문의** : 학생취업정보센터 (☎ 961-4436 / 4464)

2003. 10

학생취업정보센터

2대가 운영하고 있는 헌책방, 신고서점속으로…

책장마다 묻어나는 사람의 향기, 느껴보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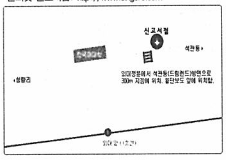


낡은 듯하면서도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무 책꽂이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인 책들. 인심 좋아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의 푸근한 미소. 신고서점의 첫 풍경이었다.

신고서점은 우리학교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헌책방이다. 이 서점이 특별한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2대째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 아저씨 김해각(62)씨는 "기자라면 언제라도 두 팔들고 환영이지. 우리 가게에 기자 여럿 왔었어. 한겨레21, 시사저널, 서울대, 고려대..."라고 말하면서 너털웃음을 지으셨다. 또 주인 아저씨는 "저기 저 여자가 여기 대장! 우리 아들이 사장님! 그리고 나는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라고 말하며 주인 아주머니 전춘화(57)씨를 가리켰다. 새책에서 느낄 수 있는 세련됨은 없었지만 사람의 손때가 묻은 헌책에서 느낄 수 있는 정겨움이 있는 곳이었다. "70년대에 모피를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회사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어. 내가 다 읽은 책들을 직원들과 함께 읽고 싶어서 만든 곳이지. 그런데 80년대에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헌책방을 열게 됐어"라고 말하시는 주인 아저씨의 모습에서 삶의 연륜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였다. 한 청년이 바쁜 걸음으로 서점에 들어왔다. 사장님이었다. 바로 김해각씨의 아들 김종명(35)씨였다.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직장 다니기 싫어서요"라고 웃으며 답했다.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또 하나의 신고서점을 개업한 장본인이었다. 인터넷 헌책방, 나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책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통신상에 헌책들을 올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그의 대답에서 소박하면서도 겸손한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주인 아저씨의 얼굴에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 가득했다. 신고서점의 헌책들은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인아저씨가 말했다. 주인 아저씨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은 약 23만권 정도 되는데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는 책들은 약 7~8만권 정도라고 말했다. 정말이지 신고서점에는 일본어 만화책, 50~60년대에 나온 초판본 등 일반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책들로 가득했다. 주인 아저씨의 말씀에 따르면 50~60년대에 나온 초판본이나 옛 서적들이 일반 서적들보다 더 귀중하고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한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는 "헌책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야. 요새는 너무 뭐든지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는데 책만큼은 외형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잖아. 헌책이라고 해서 내용이 부실한 것도 아니잖아"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 달라는 나의 부탁에 아저씨는 "동양고전을 읽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 고전이라고 해서 옛날로 회귀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우리 현실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삶의 지혜들이 고전에는 많이 담겨져 있거든. 함축되어 있는 글속에 큰 뜻이 숨겨져 있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꺼야"라고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 서점을 여는 사업가들과는 사뭇 다른 인간적인 매력과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신고서점. 어찌보면 조금 오래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곳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에는 새것이 아닌 헌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주인아저씨 내외와 아들이 있었고 그들을 닮은 헌책들이 있었다.

조혜원 기자
mutate84@hanmail.net

인터넷 신고서점: http://www.singoro.com



학회를 찾아서 3

서반아어과 원어 노래 소모임 로스노비오스(Los Novios)

라틴의 열정을 가슴 가득히

지난 서울배움터 세민전에서 '라밤바' 등 신나는 라틴음악을 선보이며 개막공연을 열었던 팀을 기억하는가? 바로 서울배움터 서반아어과 내 원어노래패 '로스노비오스(Los Novios)'이다. '연인들'이라는 뜻을 가진 로스노비오스는 지난 88년 창설된 노래패로 올해로 창단 16년을 맞게 됐다. 현재 노래패장인 강영근(서양·서반아어 02)군을 비롯해 2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 97년부터 1회 정기공연을 가진 이후 매년 꾸준히 정기공연과 외부 초청공연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한 로스노비오스가 지난 10월 2일(목)에 6번째 정기공연을 열었다.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로스노비오스의 정기공연은 좌석을 거의 다 메울 정도로 많은 관객이 몰렸다. Re-born(다시 태어난다)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로스노비오스의 대표곡 '라밤바'를 비롯, 백지영의 노래 '추락'의 원곡인 '아픔을'까지 모두 20여 곡이 연주됐다. 지난 97년 C-Major사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98년 라틴문화 발표회 초청공연과 2001년 인천 금요예술무대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 만큼 많은 경력이 있는 로스노비오스는 이날도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많은 이들에게 박수와 찬사를 받으며 무사히 공연을 마무리 지었다. 1학기 때부터 매주 목요일에 모여서 공연준비를 했고, 공연을 앞두고는 수시로 모여 연습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한다.

노래패장인 강영근군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많은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음악적 토대를 유지하고 있다. 라틴음악의 열정이 살아있는 로스노비오스를 앞으로도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라고 로스노비오스를 소개했다. 더불어 "라틴음악을 느끼고 싶다면 바로 우리 로스노비오스를 찾아달라"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박승열 기자 park984@hanmail.net

깊어가는 가을, 한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외대학보에서는 9월 한달 동안 서울배움터 도서관과 생활도서관의 도서 대출량이 많은 학생들이 추천해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에 그들이 소개하는 책 한 권 읽는 것은 어떨까?

시구사와 케이이치의 '키노의 여행'

서울배움터 도서관에서 9월 대출량이 51권인 이연재(동양·일본어 02)양이 추천한 책이다.

"처음 이 책을 읽으면 내용이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읽다보면 고전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이나 교훈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색다른 충격을 줘요. 강박관념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기존의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살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어요."

윤건차의 '현대한국사상흐름'

생활도서관 9월 최다 대출자 강동만(사회·정치외교 01)군이 소개한 책이다. "현대 우리나라 학자들의 사상에 대해 기술한 도서예요. 현재 사상의 흐름도 알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사상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해요."

리처드 로즈의 '원자폭탄만들기'

서울배움터 도서관에서 두 번째로 9월 대출량이 많은 김태현(동양·일본어 99)군이 추천한 책이다.

"원자폭탄 개발과정과 박사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비춰주는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 원자폭탄과 이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된다. 또 이러한 실제적인 이야기 이면에 깊은 내용이 숨어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이다."

홍세화의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생활도서관 두번째 9월 최다대출자인 박통일(서양·영어03)군이 소개한 책이다. "일단 책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홍세화씨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 다음에 펴낸 책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국가이고 반공사상이나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좌파 지식인들이 자리를 못 잡고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홍세화씨는 이런 상황에서 좌익을 대변하는 자신이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조혜원 기자 mutate84@hanmail.net

우리말 이야기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

당조 대의 유명한 시인 이백은 어린 시절부터 사서 같은 책을 읽었지만, 그런 책들은 너무 어려워 읽을 재미가 없어서 늘 글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어느날 그는 또 글방에서 도망쳐나오다가 한 할머니가 쪽걸상에 앉아 숫돌에 대고 골똘히 쇠공이를 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를 궁금히 여긴 이백은 이것으로 무얼 만들지 여쭤보았다.

"이걸 갈아서 바늘을 만들련다" 할머니가 대답하였다.

"바늘을 만든다구요? 할머니, 이렇게 큰 쇠공이로 어떻게 바늘을 만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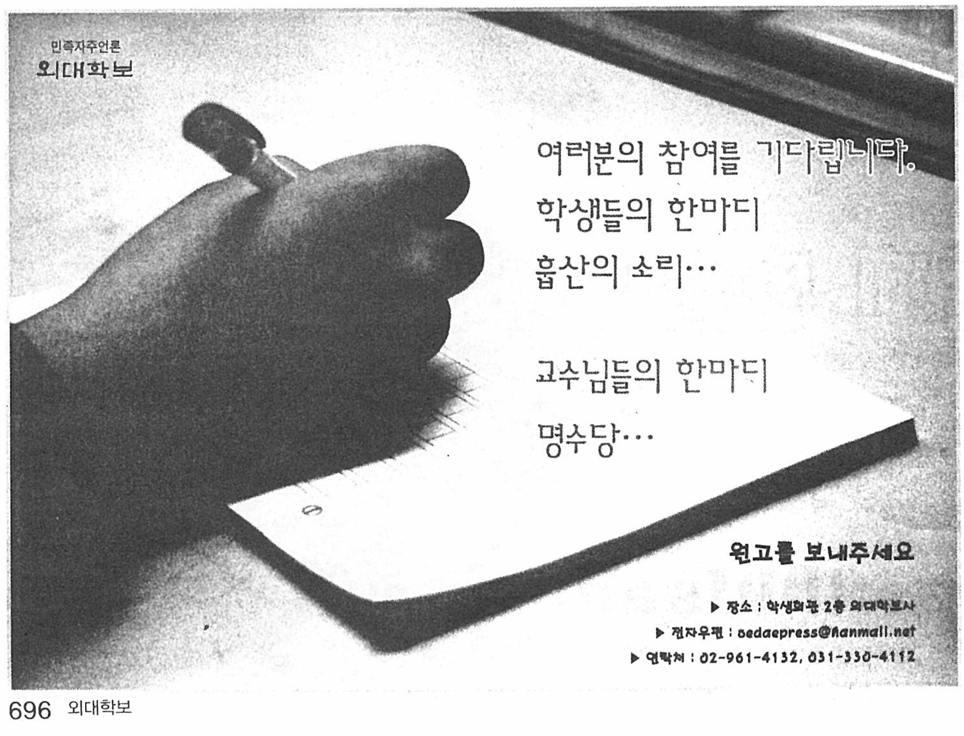
할머니는 이백을 쳐다보면서 대답하였습니다.

"얘야, 너는 이런 것도 모르느냐? 쇠공이가 크지만 내가 매일 갈고 있지 않느냐! 매일 꾸준히 갈고 도 갈면 그래 바늘이 되지 않을리 있니?"

"옳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먹고 날마다 꾸준히 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못 해낼 일이 없겠구나.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겠다. 어려운 책들도 날마다 꾸준히 읽는다면 나중에는 그런 책들을 다 읽고 알게 될거야"

이백은 글방에 뛰어가 읽기 어렵던 책들을 펼치고 꾸준히 학습하였습니다. 하여 끝내 당조의 유명한 시인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말 연구회



문화 캘린더

공연정보

꼬메디아 (Commedia)
장르 : 연극
때 : 2003/09/22~2003/10/19
곳 : 포스트 극장
가격 : 1만2천원

델리스파이스, 이적, 불독맨션, 넬 조인트콘서트 - 가을의 전설
장르 : 라이브 콘서트
때 : 2003/10/18~2003/10/18
곳 : 어린이 대공원 내 돔아트홀
가격 : 5만원

늙은 부부 이야기
장르 : 연극
때 : 2003/10/04~2003/10/12
곳 : 문예진흥원 학전블루소극장
가격 : 1만2천원

록뮤지컬 「지하철 1호선」
장르 : 뮤지컬
때 : 2003/10/01~2003/12/31
곳 : 학전 그린 소극장
가격 : 2만원

하얀나비의 비명 아이고
장르 : 무용/전통예술
때 : 2003/10/12~2003/10/12
곳 : 문예진흥원예술극장대극장
가격 : R석-2만원, S석-만원

책소개

나는 복서다

이인영 지음 / 들녘 출판사 / 8,500원

나에게 파이널 라운드는 없다!

얼마전 한국 최초의 여성 세계챔피언이 된 이인영.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용사 보조로 남의 머리 감는 일과 봉제공장에서 실밥 따는 일을 했다.

잠깐 동안이지만 학원 셔틀버스를 몰기도 했고 일반택시 기사에, 남자도 하기 힘든 식품회사 트럭 운전사 노릇까지 했다.

그리고 중증 알코올 중독자로 10여 년 동안 길고 긴 어둠의 터널 속을 헤매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섬광처럼 권투의 마력이 그녀를 휘감았다. 마침내 서른의 나이에, 링에서 길을 찾는다. 로드워크를 하고, 샌드백을 두드리고, 사각의 링에서 스파링으로 땀을 빼며 다시 태어난 프로복서 이인영.

그녀는 오늘도 무한 도전, 무한질주를 꿈꾼다.